
하디기념대회 기자회견 자료

“왜 하디인가?”

감독회장 이철

안녕하십니까?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이철목사입니다. 오랜만에 기사분들을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자주 만나서 대화를 나누지 못해 죄송합니다.

□ 영성회복이 필요한 이유

지금 우리는 내적으로 영적 능력을 잃고, 외적으로 신앙의 영향력을 점점 상실하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지는 위기에 대해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이미 모두가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연합기관도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교단장으로 여러 모임과 회의에 참여할 때마다 다시는 오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이 간절할 정도로 힘이 듭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뿐입니다. 다시 영적인 부흥이 있어야 합니다.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내용이 없고, 형식은 갖추었으나 생명이 없으며, 몸은 있지만 운동력이 없는 산송장과 같은 자신을 하나님의 용광로에 녹여내어 새로운 나로 다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 하디 선교사가 바로 시작!

양화진 선교사묘원에 가보셨습니까? 그곳에 하디 선교사의 묘비가 있습니다. 2006년 5월 감리교회는 하디 선교사 영적대부흥운동 100주년을 맞아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오래 전부터 그곳에는 평생 하디선교사가 가슴에 묻어두었던 어린 두 딸의 묘비가 있었습니다. 작고 보잘 것 없는 묘비는 그나마 우리 민족의 역사처럼 거친 풍상에 빛바래고, 깨어져 있었습니다. 한 세기가 바뀌어 건립된 기념비는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두 딸의 묘석을 감싸고 있어 그 자체로 감동을 줍니다. 하디 목사는 생애 45년 동안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한 위대한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그의 삶은 조선 땅에 두 발을 딛고, 하나님만 바라는 복된 사역의 길이었습니다. 그는 한국교회의 영적부흥을 위해 헌신하였고, 자신이 앞장서 불씨가 되었습니다. 1903년 8월, 저 유명한 원산부흥운동의 불을 붙였고, 마침내 1907년 평양대부흥에 이르기까지 한국교회의 오늘을 가능케 한 영적 자취였습니다. 감리교회가 하디선교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부흥운동의 대역사를 오늘에 재현하려는 간절함 때문입니다.

ㄴ 장로교 이전에 감리교가 부흥운동의 시작

사실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이 한국교회에 크게 자리잡고 있는데 그 부흥운동의 시작이 바로 1903년 원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장로교 이전에 감리교회로부터 부흥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회를 통해 감리교회가 그 역사를 기억하고 영적각성운동을 다시 시작하려는 것입니다.

ㄴ 한국감리교회 선교의 특징

한국감리교회의 역사는 인간의 계획이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감리교회 선교는 그야말로 우연의 일치가 연속되는 역사입니다.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이후 외교관계를 맺고 1883년 미국으로 간 보빙사절단 일행을 감리교 목사였던 가우처 박사가 우연하게 만난 것으로 한국감리교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선교정탐을 위해 조선 땅에 발을 디뎠던 매클레이가 고종황제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동부승지였던 김옥균과의 우연한 만남때문이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기사(Knight)집안인 스위스 아픈젤 가문 출신이라서 무사도 정신이 살아있는 일본을 선교지로 품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스크랜턴모자선교사 역시 직접 선교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한국감리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회를 이번 성회를 통해 가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ㄴ 제국에서 민국으로의 변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처음 사용한 것이 1919년 4월입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었기 때문입니다. 임시정부수립은 삼일운동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삼일운동의 거점이 된 것이 교회였습니다. 당시 교회는 사람들의 안식처이자 피난처로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1903년 원산에서의 하디 선교사의 회개때문이었습니다. 정리하면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우리나라 사회체제가 변화되는 그 시작점이 하디 선교사의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한 한 사람의 회개는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킵니다.

□ 이번 성회의 특별한 점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거의 모두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만을 기억합니다. 대한제국이 대한민국으로 변화된 역사의 중심에 기독교신앙과 교회가 있었다는 것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감리교, 순복음, 성결교, 구세군 등 웨슬리의 신앙을 계승하는 6개 교단의 교단장들이 ‘웨슬리언교단장협의회’를 구성한 이후 하디 선교사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여 여의

도순복음교회 설립 65주년과 성령대만회는 하디 영적각성 120주년을 기념하는 성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8월 24일 선한목자교회에서 열리는 하디 영적각성 120주년 기념기도성회에는 6개 웨슬리언 교단장들이 모두 참여하여 함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감리교회가 주도하여 웨슬리언 교단장을 초청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참여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먼저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디 영적각성 120주년이라는 기회를 놓치면 안됩니다.

□ 이번 성회가 기회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성직자와 교인들의 영적 해이, 윤리적 타락으로 인해 교회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회개’(Repentance)와 ‘개혁’(Reformation)을 외치는 예언자들이 나타났는데, 그런 개혁의 요구를 교회 안에서 수용하여 자기 갱신의 기회로 삼는 경우엔 교회가 분열됨이 없이 영적 권위를 ‘회복’(Recovering)하고 다시 활기를 되찾아 세계 구원의 기능을 발휘하였지만, 교회 안의 기득권자들이 그런 요구를 소수의 불평이나 불만으로 몰아 제도권 밖으로 추방하면, 결국 교회는 분열되고 기득권층이 지키려 했던 교회의 권위는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회복을 갈망합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교회 안에 역사했던 성령과 신앙을 오늘에 재현(Resuscitation)하는 시작과 근원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있어야 합니다. 하디 선교사가 그 모델을 120년 전에 보여주었습니다. 변화와 회복을 가져다 주는 영적각성운동은 참된 회개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이루어놓은 결과물의 높음을 자랑하나, 하나님과 역사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행하지 못한 불순종의 무게 역시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영적각성에서 그칠 수 없습니다. 그 각성에는 반드시 참된 실천이 뒤 따라야 하고, 그 회개의 열매로서 갱신의 삶이 요청됩니다.

하디의 대각성에서 보듯 진실한 부흥은 “괴롭고 창피한”(painful and humiliating)“ 가슴을 치는 무릎 꿇음에서 시작됩니다. 회개와 중생과 성화로 이루어지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 대신 기복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을 신앙의 본질로 오해하도록 만든 한국교회 강단의 책임이 실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03년 8월, 하디가 원산의 토착 교인들 앞에서 하였던 “괴롭고 창피한”(painful and humiliating) 자백이 오늘 한국교회에 재현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아니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이번 성회가 한국교회에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